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9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5장 21-24절

설교제목 : “동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미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소책자를 썼는데 그의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정통신학이나 교리에 두거나 혹은 종교적 도덕적 행위에 있는 줄 알거나 또는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 체험에 있는 줄 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서 에녹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 언급합니다. 우선, 5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죽었더라’는 단어입니다.(5, 8, 11, 14, 17, 20절) 그런데 5장의 죽음의 기록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빗겨간 인물이 에녹입니다. 24절 “에녹이..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다’로 번역된 ‘라카흐’는 엘리야의 승천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녹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죽음을 데려갔다고 표현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히 11:5에 보면, 분명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에녹의 삶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의 짧은 생애를 기록한 4절의 본문 속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22절, 24절) 이것은 에녹의 인생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녹의 삶만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3:20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식사하자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과 관계는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은혜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2의 상반 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사탄이 전략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무 걱정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돈, 섹스 권력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실패한 자들은 죄의 유혹이 강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결코 삶이 바

끼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산 생명의 년 수는 **삼백 육십 오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년 수는 **삼백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년 수와 에녹이 실제로 산 시간이 다릅니다. 에녹이 65살까지는 그냥 나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살에** 므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21-23절) 따라서, 에녹의 300년의 동행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므두셀라의 탄생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므두셀라의 탄생으로 인해 에녹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므두셀라**’의 이름은 문자적인 뜻이 ‘**창의 사람**’, ‘**병기의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당시 창지기가 부족을 이끌었는데, 따라서 창지기가 죽으면 부족이 멸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인류멸망을 암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므두셀라 자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두셀라**란 아들을 통해서 에녹에게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므두셀라가 죽게 되는 969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입니다. 결국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인생을 마지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약속된 주님의 재림과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11:5-6**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에녹의 삶에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주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